La clemenza di Tito, K. 621

- □□

정보

개요
곡명: La clemenza di Tito, K. 621
작곡가: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장르: 2막 이탈리아어 오페라 세리아 (dramma per musica)
언어: 이탈리아어
대본: Caterino Mazzolà, Pietro Metastasio의 1734년 대본을 개작
작곡: 1791년
무대: 서기 80년 로마
초연: 1791년 9월 6일, 프라하 국립극장. 후대 자료에는 Nostitztheater, Ständetheater, Estates Theatre 라는 명칭도 나온다
초연 계기: Leopold II의 보헤미아 왕 대관식 관련 공연

IMSLP: La clemenza di Tito, K. 621

Wikipedia: La clemenza di Tito

Wolfgang Amadeus Mozart의 이탈리아어 2막 오페라 세리아 La clemenza di Tito, K. 621은 황제 암살
계획이 카피톨의 화재와 재판으로 번진 뒤, Tito가 친구 Sesto와 공모자 Vitellia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그린다. 1막에서는 연인의 명령에 휘말린 Sesto가 반란에 가담하고, 2막에서는 그가 끝내 감춘 이름과 Vitellia 가 뒤늦게 감당하는 책임이 황제의 판결 앞에 놓인다. 마지막 사면은 제목이 내세운 자비를 Tito의 실제 판결로 보여 준다. 배신당한 통치자는 법과 우정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관식 공연에 맞춰 압축한 대본

Pietro Metastasio가 1734년에 쓴 La clemenza di Tito는 세 막짜리 대본이었다 . Caterino Mazzolà는 1791년 프라하 공연을 위해 이야기를 두 막으로 줄이고 장면과 음악 번호를 다시 배열했다. 이 개작은 Sesto 의 사적 선택에서 Tito의 판결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두 막에 압축한다. 1막 끝의 카피톨 화재는 Sesto의
음모를 궁정과 시민이 지켜보는 공적 위기로 바꾼다.

오페라는 Leopold II의 보헤미아 왕 대관식을 위한 프라하 공연으로 마련되었다 . Mozart의 친필 작품
목록에는 1791년 9월 5일이라는 기입일과 다음 날 프라하에서 공연했다는 기록이 함께 있다. Bärenreiter가 공개한 Neue Mozart-Ausgabe 서문은 이 행사를 대관식 축하의 일부로 기록한다. 이 의례적 주제는 극
안에서 통치자의 자비를 실제 판결로 내려야 하는 Tito의 고뇌와 나란히 전개된다.

NMA 서문은 초연 장소를 프라하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으로 적는다. 후대 극장사 자료에는 Nostitztheater, Ständetheater, 오늘날의 Estates Theatre라는 이름도 나온다. 이 명칭들은 같은 프라하

극장의 서로 다른 시기 표기로 이어진다 .

누가 누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이 오페라의 갈등은 황제 주변의 세 관계가 맞물리며 시작된다 . Sesto는 Tito의 친구이자 Vitellia의 연인이고 , Annio는 Servilia를 사랑하는 Sesto의 친구다 . Tito가 누구와 결혼할지를 정하는 일은 각 인물의 사적인 사랑과 황제의 공적 결정을 한데 얽는다 .

배역	극 중 관계	**1791**년 초연 가수와 성부
Tito Vespasiano	로마 황제 , 최종 판결을 내리는 통치자	Antonio Baglioni, 테너
Vitellia	폐위된 Vitellius의 딸 , 황후 자리를 바라보며 Sesto를 움직인다	Maria Vincenza Marchetti Fantozzi, 소프라노
Servilia	Sesto의 누이이자 Annio의 연인	Antonia Miklaszewicz, 소프라노
Sesto	Tito의 친구이자 Vitellia의 연인	Domenico Bedini, 카스트라토 . 악보의 배역표는 소프라노로 적는다
Annio	Sesto의 친구이자 Servilia의 연인	Carolina Perini, 소프라노 . 남성 배역을 맡았다
Publio	근위대장 , Sesto의 체포와 판결 집행을 맡는다	Gaetano Campi, 베이스

1791년 초연에서 Sesto는 카스트라토 Domenico Bedini가 맡았고 , Annio는 소프라노 Carolina Perini가 남성 역할로 노래했다 . 현대 공연은 Sesto를 메조소프라노가 맡는 경우가 많다 . Bärenreiter의 배역표는 Sesto를 소프라노로 적고 , 초연 기록은 Bedini를 카스트라토로 밝힌다 . 같은 판본은 Mozart의 목록에 간략히 적힌 “Signora Antonini”를 Servilia 역의 Antonia Miklaszewicz로 확인한다 .

1막 : 사랑의 명령이 도시의 화재로

막이 열리면 Vitellia는 Tito가 자신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과 황후가 되려는 욕망을 Sesto에게 쏟아 놓는다 . 그녀는 Tito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Sesto의 사랑을 시험하고 , Sesto는 친구인 황제를 배신할 수 없다는 마음과 Vitellia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린다 . 그의 아리아 *Parto, parto, ma tu ben mio*는 떠나겠다는 결심을 노래하면서도 클라리넷 독주와 주고받는 선율로 망설임을 드러낸다 .

Tito는 Berenice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Servilia를 아내로 맞으려 한다 . Servilia는 Annio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 Tito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다 . 이 장면에서 황제의 권력은 타인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결정으로 나타나며 , Sesto에게 암살을 명령하는 Vitellia의 태도와 대조된다 .

곧 Publio가 Tito가 Vitellia를 황후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 Vitellia는 이미 카피톨 언덕으로 떠난 Sesto를 되돌리려 하지만 , 암살 계획은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 카피톨에 불이 나고 , Sesto는 혼란 속에서 Tito가 칼에 찔렸다고 믿는다 . 그는 궁정으로 돌아와 소식을 전한 뒤 자신의 가담을 고백하려 하지만 , Vitellia가 그의 입을 막는다 . 합창이 붙는 5중창 *Deh conservate, oh Dei*는 황제의 생사를 기다리는 궁정과 도시의 공포를 무대에 모은다 . Neue Mozart-Ausgabe의 장면 ·번호 색인과 대본

2막: 진실을 숨기는 친구, 판결을 되돌리는

황제

Annio가 Sesto에게 Tito가 살아 있다고 알리며 2막이 시작된다. Sesto는 자신이 반란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 이유와 Vitellia의 이름은 말하지 않는다. Vitellia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한다. 곧 Tito가 아니라
공모자 Lentulo가 칼에 찔렸고, 살아남은 Lentulo가 Sesto를 지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Publio는 병사들과 함께 와 Sesto를 체포한다.

원로원은 Sesto에게 야수에게 물리는 형을 선고하고, Tito는 오랜 친구의 죄를 직접 확인하려 한다. 3중창 Quello di Tito è il volto에서 Sesto는 끝내 Vitellia를 밝히지 않는다. 죽음을 앞둔 그의 론도 Deh per questo istante solo는 Tito에게 두 사람의 우정을 기억해 달라고 청한다. Tito는 사형 집행 문서에 서명하지만 ,
통치자가 잔혹한 마음을 가졌다는 비난보다 지나치게 자비롭다는 비난을 택하겠다는 결심을 노래 Se all’impero, amici Dei에 담는다. 이 아리아는 서명 뒤에도 친구를 처형할 수 없다는 그의 판단이 바뀌는
순간에 놓인다.

Servilia와 Annio는 Vitellia에게 Sesto를 살려 달라고 호소한다. Sesto가 끝까지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Vitellia는 자기 선택이 그의 죽음을 부를 수 있음을 깨닫는다. 동반 레치타티보 뒤에 이어지는 론도 Non più di fiori vaghe catene에는 바셋호른이 성악과 함께 놓인다. 마지막 장면에서 Tito가 형을 선고하려는 순간 Vitellia가 음모를 꾸민 사람은 자신이라고 자백한다. 이미 Sesto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던 Tito는 그를 비롯한 공모자들을 모두 사면하고, 여섯 독창자와 합창이 종결부 Tu, è ver,

m’assolvi Augusto를 함께 부른다. Opéra de Monte-Carlo의 시놉시스 는 이 사건 순서와 번호의 위치를 확인한다.

독창에서 앙상블로: 갈등을 함께 듣는 방식

이 오페라에서 독창은 한 인물이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만들고, 앙상블은 서로 다른 판단이 한 장면 안에서 부딪히게 한다. 1막 끝의 5중창 Deh conservate, oh Dei는 Sesto의 고백을 막는 Vitellia와 황제의 생사를 기다리는 인물들을 합창에 연결한다. 2막에서는 Tito의 동반 레치타티보 , Sesto를 마주한 3중창, Sesto의 론도, Tito의 아리아가 이어지며 사형을 선고할지 사면할지가 하나의 긴 판단 과정으로 펼쳐진다. 마지막 6 중창과 합창은 황제의 결정에 개인과 로마 시민이 함께 응답하게 한다. Mazzolà와 Mozart는 오페라 세리아의

독창 ·레치타티보 형식을 유지하면서 합창과 중창으로 사건을 여러 사람의 눈앞에서 진행시킨다 . NMA의 장면

색인 과 Opéra de Monte-Carlo의 작품 해설 은 번호의 배열과 극적 맥락을 보여 준다.

자필 총보와 1804년 빈 공연판

Neue Mozart-Ausgabe는 베를린 Dahlem에 보관된 자필 총보를 서곡과 대부분의 음악 번호를 편집하는 주된 자료로 삼는다. Köchel-Verzeichnis는 1795년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된 Siegfried Schmiedt의 피아노 보컬 악보를 첫 인쇄 자료로 기록한다. NMA는 1809년 라이프치히 Breitkopf & Härtel의 첫 전곡 총보에 세코 레치타티보가 빠졌다고 설명한다. Vitellia의 두 번째 아리아와 1막 피날레의 자필은 제 2차 세계대전 뒤 사라졌고, 2막 피날레 앞 Tito의 동반 레치타티보도 자필 총보에 적혀 있지 않다. 1막의 짧은 이중창 No. 3은

Constanze Mozart가 총보에서 떼어 냈다. 이 악보는 수집가와 Stefan Zweig를 거쳐 현재 Eva Alberman의 연구 대여 형식으로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NMA의 편집본은 남은 자필 총보와 분리된 악보 조각, 사본을 함께 대조한다.

세코 레치타티보 대부분은 Mozart의 자필이 아니다. Franz Xaver Süssmayr가 작곡했다는 귀속이
전해지지만 , NMA는 이를 입증할 동시대 문서와 그의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다. 편집본은 Mozart가 직접 남긴 짧은 부분과 다른 사본을 함께 사용한다. 따라서 Süssmayr의 작곡자 표기는 후대의 전승으로 남아 있다.

1791년 프라하 공연판과 1804년 빈의 공연 개작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Michael Collins의 연구에 따르면, 고음역 바리톤 Antonio Brizzi가 Tito를 맡은 빈 공연에서 Joseph Weigl은 Mozart의 합창 Serbate, o Dei custodi에 새 Tito 아리아 Splenda di Roma il fato를 붙였고, Tito와 Sesto의 이중창 Incolpar tu non dovrai를 더했다. Tito의 Mozart 아리아 Se all’impero는 빠지고, Simone Mayr의 Non tradirmi in questo istante가 이를 대신했다. Annio의 Torna di Tito a lato와 Servilia의 S’altro che lagrime도 빠졌다. 이
개작은 성악가와 당시 공연 관행에 맞춰 악곡을 바꾼 사례다. Alessandro de Marchi가 지휘한 CPO 777870-

2는 이 1804년 공연판을 재구성해 들려준다. Collins의 연구 와 Gramophone의 CPO 음반 리뷰 는 대체곡과
녹음의 성격을 함께 설명한다. Mozart의 친필 작품 목록은 음악을 “24 Pezzi”라고 적는다. NMA 장면 색인은 서곡과 본문 번호를 26번까지 배열한다. 두 자료의 목록 범위가 다르므로 이 수치들을 같은 기준의 총곡 수로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무대에서 다시 묻는 자비

2026년 Vienna State Opera 신작 공연을 준비하던 지휘자 Pablo Heras-Casado는 Parto, parto의
클라리넷과 Non più di fiori의 바셋호른을 인물의 속마음에 응답하는 소리로 해석했다. 그는 이 오페라에
대관식의 장중함과 실내악 같은 친밀함이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Heras-Casado는 두 독주 악기가 각각 Sesto

와 Vitellia의 내면을 드러내는 성부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Vienna State Opera의 인터뷰 는 당시 새 제작의
지휘를 앞둔 그의 해석을 담았다.

같은 극장의 2026년 리허설 인터뷰에서 Vitellia 역 Hanna-Elisabeth Müller는 인물의 야심과 통제 욕구를 드러내면서도 , 실수를 거듭하며 얽혀드는 사람으로 Vitellia를 그리려 했다고 말했다. Tito 역 Katleho Mokhoabane는 Tito의 연민에 통치자의 판단이 겹치고, 친구의 배신에 개인으로서도 깊이 상처받는다고
설명했다. 두 가수의 말은 사랑과 권력, 우정과 판결이 한 인물 안에서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보여 준다.

배우 인터뷰 는 해당 제작의 리허설 대화다.

2019년 LA Opera 제작을 준비하던 연출가 Thaddeus Strassberger는 복수를 예상할 만큼 갈등을 쌓은 뒤 Tito가 사면을 선택하면 관객에게 놀라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리허설에서 장면마다 앞선 사건과 인물
사이의 갈등, 해결 방향을 배우들과 함께 읽는다고 설명했다. 그의 구상에서 마지막 사면은 앞선 장면에서

이어진 인물들의 선택에 따라 도착한다. Bachtrack 인터뷰 는 2019년 한 제작의 구상을 기록한다.

편성

Neue Mozart-Ausgabe가 제시하는 기본 편성은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팀파니와 현악기다. 세코 레치타티보의 계속음은 하프시코드와 첼로로 적혀 있다. 이 편성은 작품 전체의
관현악을 보여 주며, 특정 음악 번호의 독주 악기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다.

Sesto의 아리아 Parto, parto, ma tu ben mio에서는 클라리넷 독주를 바셋 클라리넷으로 지정하고, Vitellia 의 Non più di fiori vaghe catene에서는 바셋호른을 쓴다. NMA는 독주 바셋 클라리넷이 9번, 바셋호른이 23 번에 나온다고 표시한다. 두 악기의 음역과 음색은 서로 다르며, 각각 Sesto와 Vitellia의 독창에 놓인다.

소요 시간

공연 시간은 판본과 지휘자의 템포, 레치타티보의 길이, 휴식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Opéra national de Paris 가 2026–27 시즌 공연에 안내한 시간은 휴식 30분을 포함해 2시간 45분이며, 1막 65분과 2막 70분으로 나뉜다. Teatro La Fenice의 2025년 공연은 1부 60분, 휴식 25분, 2부 65분으로 총 2시간 30분을 안내했다. 두 수치는 각 극장의 특정 제작에 관한 정보다. Gramophone이 기록한 CPO 777870-2의 142분은 음반 재생 시간이며, 휴식이 포함된 극장의 상연시간과는 기준이 다르다.

주요 자료

Mozarteum Köchel-Verzeichnis, K. 621
Bärenreiter TP 321, Neue Mozart-Ausgabe II/5/20, La clemenza di Tito
Neue Mozart-Ausgabe, La clemenza di Tito, 악보 ·장면 색인
Opéra de Monte-Carlo, 작품 소개와 시놉시스
Michael Collins, “Mozart’s La clemenza di Tito and Marcos Portugal’s Tito Vespasiano” Opéra national de Paris, 2026–27 공연 정보
Teatro La Fenice, 2025년 공연 정보
Pablo Heras-Casado, Vienna State Opera 인터뷰
Hanna-Elisabeth Müller와 Katleho Mokhoabane, Vienna State Opera 인터뷰
Thaddeus Strassberger, Bachtrack 인터뷰
Gramophone, La clemenza di Tito, CPO 777870-2